

[**국제**]

베트남, 31년만에 세계경제무대 복귀

WTO, 150번째 가입국 승인

◁세계 정치·경제 무대 정식 복귀=베트남의 이번 WTO 가입은 지난 2001년 중국의 가입에 이어 세계 경제무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결정이다. 베트남으로서는 전쟁이 끝난후 31년 만에 전쟁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모든 장벽을 허물고 세계 무대에 복귀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베트남은 지난 1995년 전쟁 상대국이었던 미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정치적으로는 국제무대의 일원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WTO 가입과 미국의 환구적 정상 무역관계(PNTR) 승인 등 많은 과제가 남아 국제 경제 무대에선 '정상적인 국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경공업 분야 수출 25% 늘듯

◁경제발전 가속화 계기=베트남의 WTO가입은 경제적으로도 절실한 과제였다. 2000년대 들어 연평균 7.5%의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2010년까지 8% 이상의 지속 성장을 추구하는 베트남으로선 성장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외부에서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빈약한 재정과 내수구조를 가진 베트남이 의존할 것은 수출 증진과 외국 투자유치 뿐이다.

하지만 WTO에 가입하면 우선 대외신용도가 높아져 외국자본의 투자가 활발해진다. 쿼터 규제와 관세장벽이 낮아져 수출이 늘어난다. 특히

베트남이 마침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 꿈을 이룬다.

WTO 일반이사회는 7일 밤(이하 한국 시각) 베트남의 150번째 회원국 가입을 승인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30일 후인 12월 초부터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리기로 의무도 지게 된다.

섬유·봉제와 신발류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베트남은 미국과 EU 등의 이 분야 쿼터가 폐지되면 단기적으로 이 업종의 수출이 25%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 업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수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민주화 요구를 경제성장으로 피해갈 듯=WTO 가입이 베트남에 장미빛 전망만을 안겨 주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은 섬유, 신발 등 경쟁력이 있는 업종의 수출과 투자가 증대되는 대신 이들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없애야 하고 수입원자재 값도 함께 올라 어느 정도의 비용감수가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베트남이 취약한 금융, 통신, 자동차, 서비스 등 다른 업종에서 선진국들과 대항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개방체제가 확대될수록 빈부격차 확대 등 자본주의 폐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정치에도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공산당 1당체제를 유지

하고있는 세계에서 몇개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다. 이미 급속한 개방과 함께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공산당 1당체제에 대한 도전이 만만치 않다.

한국기업들, 교역증가 기회

◁한국 기업 진출·수출 크게 늘어날 듯=베트남의 WTO 가입이 한국 경제에 일단 좋은 기회 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년 전부터 '베트남 붐'을 타고 800여개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다. 누적 투자액도 지난 6월말 현재 52억달러를 넘어섰다. 진출 기업의 수와 투자액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WTO 가입이 확정되면 우선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쿼터규제가 없어져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고 쿼터를 사거나 제3국을 거쳐 수출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된다. 또 국영기업들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돼 한국기업들은 지금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밖에 국내에서 들어오는 원부자재의 수입관세가 낮아져 원부자재 구입 비용도 줄일 수 있다.

특히 금융, 유통, 통신, 법률 등 각종 서비스업은 베트남이 아직 접해 보지 못한 신종 업종이어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한국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경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서방 대자본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계기업'들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위기의 측면도 있다. /정후식기자 who@



붉은 군대의 붉은 광장 행진 러시아 병사들이 7월 2차대전 당시의 군복을 입고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행진하고 있다. 이날 퍼레이드는 지난 1941년 소련 군대가 나치의 침략을 저지한 것을 기념해 펼쳐졌다. /AP=연합뉴스

中-인도 FTA 체결 추진

〈자유무역협정〉

후진타오 인도 방문때 '24억 경제권 탄생' 관심

중국과 인도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계 인구 1, 2위에 매년 10% 안팎의 고속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두 나라 간에 FTA가 체결돼 발표되면 이는 세계 최대의 FTA로 기록된다. 또한 전 세계 인구의 40%인 24억명의 경제적 통합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여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과 인도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무부 푸쑹잉(傅自應) 부장조리(차관보)는 "인도와 국경지대에 무역거점을 개방함에 이어 FTA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나라는 수십년간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지난 2002년 경제협력에 합의한 이후 교역규모가 급신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히말라야의 한 국경지점을 무역거점으로 개방했다.

통신은 하지만 인도가 FTA 체결에 합의했는지, 회담은 언제 시작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후 주석은 이날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 두 나라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180억달러에 달했고 올해는 2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도 현재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지난 9월에 합작 기술개발 증진을 위한 각료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후 주석의 인도 방문기간에 이를 위한 최종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서해이=연합뉴스

김정일, 6자복귀 선언후 대외활동 잇따라

군부대 시찰 등 여유·자신감 현 상황 대내외 과시하는 듯

'승리의 종착역에 다다른 것일까... 승리자로서의 회심의 미소일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의양양한 모습으로 판안대소 하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합의한 지 사흘 뒤인 지난 3일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된 김 위원장의 제1112군부대 시찰 장면에서 김 위원장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다.

김 위원장이 흰색 점퍼에 선글라스를 끼고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참모들과 함께 부대 구내를 거니는 모습은 경쾌하기 그지 없으며, 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하는 장면에서는 이빨을 모두 드러낸 채 모처럼 활짝 웃고 있다.

'10·9핵실험' 이전인 9월의 금강산 방문이나 군부대 시찰 때와는 달리 얼굴이 확 퍼졌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3일 북한군 제1112군부대를 시찰하던 도중 판안대소하고 있다. /중앙통신·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6자회담 복귀 합의 후

대외활동도 부쩍 늘어났다. 지난달 31일 합의를 후 제1112군부대 시찰(11·3 중앙통신), 제595군부대 예하 '3중 3대혁명붉은기' 갈나무 중대 시찰(11·5 중앙통신), 강원도 원산목장 현지지도(11·6 중앙통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임 '올해의 발명품' '유튜브' 선정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YouTube)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에 의해 올해의 발명품으로 선정됐다.

미국 일간 '뉴욕 데일리뉴스'는 6일 유튜브가 80 파운드 승용차와 부상병사 구출용 로봇 등 경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최고 발명품이라는 영예를 안았다고 보도했다.

유튜브는 스티브 첸과 차드 헐리, 조드 카림 등에 의해 공동 설립됐으며 지난달 야후에 매각됐다. 매각대금은 16억5천만달러(1조5천800억원)였다.

타임지는 "유튜브만이 상상도 못했던 차원에서 수백만명에게 즐거움과 교육, 자극, 상호 교감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美 중간선거 돌입...민주 의회 장악여부 관심

공화·민주 양당이 막판 격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 중간선거가 7일 미국 전역에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선 상원의원(임기 6년) 100명 가운데 3분의 1인 33명, 하원의원(임기 2년)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가운데 36명을 선출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최근 조지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 12년간에 걸친 상하원의 공화당 지배가 종식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상하양원을 장악할 경우 이라크 철군일정 확정 등 부시 행정부 대이라크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과 FTA(자유무역협정) 등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 의회 장악여부 관심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이 12년만에 다수당의 자리를 되찾아줄 것으로 예상되며 상원은 공화·민주당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의 일간지 USA투데이가 6일 보도했다.

투데이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가인 갤럽과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 지지도가 51%로 공화당 지지도 44%보다 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주전 조사 때 민주당 지지도가 공화당을 13%포인트 앞섰던 것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의 경우 15석, 상원의 경우 6석을 더 얻으면 지난 1994년 이후 12년만에 의회를 다시 장악하게 된다. /워싱턴=연합뉴스

후세인 항소심 판결 내년 1월 중순께 마무리

이라크 법원으로부터 교수형 선고를 받은 사담 후세인 전(前) 이라크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년 1월 중순까지 내려질 예정이라고 검찰측 수석검사가 6일 밝혔다.

3인으로 구성된 이라크 대통령평의회는 항소심에서도 후세인의 사형이 선고되면 이를 지지하지 않기로 최소한 6개월 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집행은 항소심 선고 후 30일 안에 이뤄지며 대통령과 2명의 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알-하세미 부통령과 아달 알몰-마디 부통령은 사형집행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며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은 압돌-마디 부통령에게 서명권을 위임했다. /버그드 제논·제니비어FAP·AP=연합뉴스

베트남국제결혼

베트남 전문 기업 경리원장·탐방이 없으면 현부님을 모셔드릴 것입니다.

베트남어 할례자는 결혼비용 (1100만원) 만 원에서 시작 가능합니다.

특수한 문맹에 주시기도.

가거안 사서 담당 | 02-980-8291 | www.gosnail.co.kr

ECOLO

쓸수록 남는 전기온풍기 - 에콜로

을 겨울, 난방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별 및 대리점 문의 | (신라)02-561-1110 | www.ecolo.co.kr